

# 국어

문 1. 아래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예문>의 괄호 안에 넣을 가장 알맞은 단어는?

### 〈뜻풀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상태.

· <예 문>

자넨 이미 (        )으로만 달아 있는 청년이 아니야. 현실에  
몸담고 있는 성년이란 말일세.

— 이문열, ‘영웅 시대’ 중에서 —

- ① 공상                      ② 망상  
③ 상상                      ④ 이상

문 2. 문장 부호를 옳게 사용한 것은?

- ①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 ② 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 ③ 문장 부호 — 마침표 · 쉼표 · 따옴표 · 묶음표 등
- ④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하지 않소.

문 3. 다음 낱말을 국어사전의 올림말(표제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면?

ㄱ. 원일      ㄴ. 왜곡      ㄷ. 와전      ㄹ. 외가

- ①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②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③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④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문 4. 어휘의 의미 관계가 ㉠:㉡과 다른 것은?

아침에 별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깨입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평균처럼 활동합니다.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남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 작야(昨夜)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렁’입니다. ㉡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 이상, ‘산촌 여정’ 중에서 —

- ① 향용 : 늘  
② 미소 : 웃음  
③ 간혹 : 이따금  
④ 백부 : 큰아버지

문 5. 제시된 말의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원론[이 : 원논]
- ② 동원령[동 : 원녕]
- ③ 임진란[임 : 진난]
- ④ 상견례[상 : 견례]

문 6. 밑줄 친 단어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다시 봄이 오니 온 산과 들에 파릇파릇 새 생명이 넘쳐난다.

- ① 다시 건강이 좋아져야지.
- ②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해 봐.
- ③ 다시 보아도 틀린 곳을 못 찾겠어.
- ④ 웬만큼 쉬었으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문 7.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다른 것은?

길상이는 어쩐지 상현이 도령이 싫었다. 이심전심으로  
그쪽에서도 길상이 싫은 모양이었다.

— 박경리, ‘토지’ 중에서 —

- [illegible]

문 8.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가장 잘 다듬은 것은?

㉠ 반만 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 이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 민족의 항구  
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  
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중략) 천하 하물이던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 ‘기미 독립 선언서’ 중에서 —

- ① ㉠: 5천 년 역사의 권위를 훌륭하게 생각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② ㉡: 2천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널리 퍼서 두루 밝힘이며  
 ③ ㉢: 변함없는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늘 주장함이며  
 ④ ㉣: 인류적 양심의 억눌림이 원인이 된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를 제기함이니

문 9.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우리 ∨ 민족의 ∨ 염원은 ∨ 통일뿐이다.
- ② 무엇이 ∨ 틀렸는 ∨ 지 ∨ 답을 ∨ 맞추어 보자.
- ③ 우리는 ∨ 생사 ∨ 고락을 ∨ 함께 ∨ 한 ∨ 친구이다.
- ④ 이번 ∨ 시험에서 ∨ 우리 ∨ 중 ∨ 안 ∨ 되어도 ∨ 세 ∨ 명은 ∨ 합격할 ∨ 것 같다.

문 10. 밑줄 친 말 중 표준어인 것은?

- ① 온몸에 부시리이 나다.
- ② 낱깍대며 농지거리들을 주고받다.
- ③ 우리는 펠레야 펠 수 없는 사이야.
- ④ 그런 케케묵은 이야기는 꺼내지 마.

문 11. 통사적 합성어인 것은?

- ① 큰집
- ② 덮밥
- ③ 늦더위
- ④ 검붉다

문 12. 겹문장인 것은?

- ① 없어.
- ②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 ③ 그런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해?
- ④ 나는 나만의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산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3 ~ 문 14]

‘있다, 없다’는 동사 성격과 형용사 성격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중요시하여 따로 존재사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 는’이 붙을 수 있고, 형용사에는 ‘- 는’이 붙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있다, 없다’는 ‘있는, 없는’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둘이 의미상으로 ㉠ 동작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으니, 동사, 형용사 품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 형용사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새로운 품사로 존재사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단어 때문에 새로운 품사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컨대, ‘있다’는 ‘있는다, 있어라’라는 표현이 가능한 점이 있으나 ‘없다’는 ‘\*없는다, \*없어라’가 불가능하니,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 인정하는 게 나으리라 본다.

— 이관규,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중에서 —

문 13.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서로 다른 두 주장을 분석하여 차례대로 제시한 후, 이 두 주장을 균형 있게 종합적으로 절충하여 제3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③ 다른 사람의 견해를 먼저 제시한 후, 그것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④ 범주가 이질적인 두 대상의 특수한 공통점을 발견하여 다른 점에서도 두 대상이 지닌 공통점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문 14. 밑줄 친 말 중 ㉠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요즘 별일 없으시죠?
- ② 그는 귀신이 없다고 믿었다.
- ③ 그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 ④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문 15. 국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5세기 국어의 모음 ‘내, 네, 니, 귀’ 등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릿값(음가)이 바뀌었다.
- ② 15세기 국어의 주격 조사에는 ‘가’와 ‘이’가 있었지만, 점차 ‘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 ③ ‘어리다’라는 단어의 뜻은 ‘나이가 적다’에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현명하지 못하다’로 바뀌었다.
- ④ 15세기 국어는 방점으로 소리의 장단을 표시하였으나, 그 장단은 점차 소리의 높낮이로 바뀌었다.

문 16. (가) ~ (라)를 논리적 순서로 배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 순화’를 달리 이르는 말로 이제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국어 순화’라는 말부터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은,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다.

(가) 우리말 다듬기는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또한,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도 포함한다.

(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 다듬기란 한마디로 고운 말, 바른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라)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 및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재정리하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고운 말, 표준말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순 우리말(토박이말)’이 아니거나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을 순 우리말이나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킨다.

— 김형배, ‘우리말 다듬기’ 중에서 —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다) → (라) → (나)
- ③ (가) → (라) → (나) → (다)
- ④ (가) → (라) → (다) → (나)

문 17. 논지 전개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젤란과 필리핀 막탄 섬의 족장 라폴라푸 사이에 있었던 1521년의 전투에서 이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자.

당시 마젤란은 스페인의 지원을 받는 막강한 함대를 이끌고 있었다. 그의 배는 막탄 섬의 족장 라폴라푸가 전혀 보지 못했던 대포와 총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반면, 무적 스페인 함대를 맞이한 라폴라푸의 화력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빈약했다. 그의 부족이 갖고 있는 무기란 고작 칼, 창, 활이 전부였다. 그런데 결과는 마젤란의 죽음으로 끝났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까?

마젤란의 생각은 칼, 창, 활로 무장된 적이란 오합지졸의 군대와 같은 것이기에 총과 대포로 이들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마젤란 함대의 총포는 무용지물이었다. 당시 마젤란 함대에 무장된 총포의 유효 사거리가 오십 미터가 채 되지 않은 관계로 라폴라푸 족장이 그의 부족을 마젤란 함대로부터 철저히 오십 미터 이상의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마젤란이 갖고 있는 지식은 항해술이 대부분이었다. 이 항해술은 전쟁 수행과 관련해서 부분적인 도움을 줄 뿐이다. 분명 항해술에도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낮은 상황을 해결할 총체적인 백방의 지식이 이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마젤란은 항해술을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로 생각하였기에 끝내 죽음을 맞이하였다.

마젤란의 죽음은 왜 다양한 지식의 ( )에 근거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

- ① 분석                      ② 경험  
③ 연역                      ④ 통합

문 18. 문맥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우리는 곧잘 ‘우리’를 앞세우지만, 우리의 ‘우리’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 그것들은 다만 ‘나’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확장된 ‘우리’는 그 이기심과 배타성이 더욱 강화되고 독해진다. ‘나’와 ‘나와 관계있는 이들’은 하나로 묶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철저히 ( )하는 개념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의 ‘우리’는 더 넓어지고, 한없이 넓어져야 한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편함이 어디 한두 개인가. 울타리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성품이라면, 그 울타리를 한없이 키워 버리는 것은 어떨까? 지구와 우주 역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우편함이다.

- ① 배빈(排賓)              ② 배설(排泄)  
③ 배제(排除)              ④ 배척(排斥)

문 19. (가)의 ‘적장’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리처드 닉슨’에게 필요한 언어 전략이 아닌 것은?

(가) 일찍이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마르코만니 인들과 싸우게 되었을 때, 그는 군대를 전지에 파견함에 제(際)하여 그의 병사들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에게 내 사자를 동반시키노라!”

라고 하였다. 이에 그들은 수중지대왕(獸中之大王)이 반드시 적지 않은 조력을 할 것임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자가 적군을 향하여 돌진하였을 때 마르코만니 인들은 물었다.

“저것이 무슨 짐승인가?”

하자, **적장**이 그 질문에 대하여 왈

“그것은 개다. 로마의 개다!”

하였다. 여기서 마르코만니 인들은 미친개를 두드러 잡듯이 사자를 쳐서 드디어 싸움에 이겼다.

(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리처드 닉슨**이 한창 사임 압력을 받던 당시의 일이다. 이때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리처드 닉슨**은 전국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 ① 말로 온 공을 갚음을 명심한다.  
② 말은 꾸밈 따위로 감을 명심한다.  
③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름을 명심한다.  
④ 말이란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름을 명심한다.

문 20.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부적절한 것은?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  
오랜 날이 지나서야 알았네.  
갈대가 눕고 다시 일어나는 세월  
가을빛에 떠밀려 헤매기만 했네.  
한철 깃든 새들이 떠나고 나면  
지는 해에도 쓸쓸해지기만 하고  
얕은 물에도 휩싸이고 말아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것

— 구광본, ‘강’ —

- ① ‘새’는 화자의 정서적 등가물로 보인다.  
② 화자는 삶을 성찰하고 있어 보인다.  
③ 화자의 삶은 순탄하지마는 앓아 보인다.  
④ ‘물’은 화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인다.